

GOVERN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Office of Human Rights



FOR IMMEDIATE RELEASE
September 22, 2006

CONTACT: Aryan Rodriguez
Language Access Program
D.C. Office of Human Rights
(202) 727-3942

*워싱턴 시 언어 편의(Language Access)프로그램은 D.C.의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된
(Limited-English Proficient, LEP)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서를 제공합니다.*

(Washington, D.C.) 워싱턴 시 언어 편의 프로그램은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워싱턴 시 내에서 번역 문서를 위한 최초의 “문서 운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D.C. 인권실에서 주관하는 본 프로그램은 D.C. 지역 사회 단체들이 어느 D.C. 정부 기관의 문서를 받고 싶은지 파악하고, 영어 이외의 특정 언어로 자료를 요청할 기회를 이들 단체에 제공합니다. 보급용으로 선택된 필수 문서의 예로는 암하리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스페인어 및 월남어를 비롯한 몇몇 언어로 번역된 기관 브로슈어, 요약 자료, “이용법” 설명서 및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대략 60개 단체가 참여를 연락해 왔으며 반응의 정도에 따라 본 프로그램은 2006년 10월 말까지 모든 파악된 문서가 참여 단체에 배포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D.C. Learns의 지역사회 봉사 조정관인 Cesar Watts는 이 운동이 “D.C. 정부의 정보를 지역사회 단체에 제공하는, 인권실의 훌륭한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D.C. 언어 편의 프로그램은 2004년 D.C. 언어 액세스 법에 따라 오늘날까지 번역된 모든 중요 문서들을 수집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현재 사회 복지국, 고용 서비스국 및 D.C. 공립학교 시스템을 비롯한 22개 D.C. 정부기관들과 내부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운동은 번역된 문서를 제공받는 단체의 대표들이 해당 부서의 언어 편의 담당관들과 만나서 기타 언어 장벽의 잠재성을 해소하도록 권장합니다. “이것은 D.C. 정부가 정부 서비스를 잘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D.C.의 LEP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인권실 실장 Kenneth L. Saunders는 말합니다.

2005년 미국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현재 D.C.에는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이 15.7%로 나타났습니다. 15.7%의 주민 중 약 6%는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되거나(LEP) 또는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연방법과 2004년 D.C. 언어 편의법을 비롯한 시정부 법령에 따라, D.C.는 시의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이 모든 지역사회에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문서 운동”과 같은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441 4th Street, NW, Suite 570N, Washington, DC 20001 Telephone: (202) 727-4559 Fax: (202) 727-9589